

예향의 도시 전라북도! 환황해권 시대 주역으로

맛과 멋, 소리의 고장, 예향의 전라북도는 일찍이 농경문화를 꽃피우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이다. 그러나 중국 수출기지 및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도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의 산업경제

전라북도는 평야가 많아 특히 농업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다. 산업에 있어서는 섬유산업이 그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자동차 산업과 트레일러 업종의 발전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자동차와 트레일러 업종의 산업생산에 있어서도 49.6%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로 전라북도의 군산, 군장, 익산 산업단지에서 금년 3월 현재 2,640억원 산업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또한 1억 3,1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GM대우자동차의 수출호조에 이은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전라북도내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 70.7%로 전년에 51.9%임을 볼 때 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업가동률이 증가하다 보니 3월 현재 경제 활동인구가 83만 7,000명으로(농림어업 19%, 광공업 14%, 기타 산업 67%)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노동가능 인구는 감소하여 인구 유출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전라북도 2003년 산업 재해율이 1.07%라는 수치로도 전라북도 지역 산업 환경의 열악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익산의 석재 산업과 군산의 목재 산업은 환경이 열악하여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중소규모 제조업의 재해율이 0.91%라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 송만수 팀장〉



전주제지(주)에서 출발한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는 선진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닌 기업이다.

이는 금년 6월 “대한민국 환경 경영대상 수상”, 2003년 “대한민국 안전경영 대상” 수상이라는 굵직한 성과물로 알 수 있다.

년간 1,007천톤 생산의 15%를 교과서 서적용지로 생산하고, 나머지 85%를 신문용지를 생산하는데 세계에서 3번째의 생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펜아시아페이퍼 코리아(주)는 원료와 에너지 등을 재활용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에서 송만수 안전보건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73년 신입사원에서부터 안전과 환경업무를 수행하다 93년부터 안전업무에만 전념한다는 송만수 팀장은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의 안전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가 강하다.

송만수 팀장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외국 동종업종의 호주 노르스케슬코크와 캐나다의 이바티디의 HVALUE(도수율) 보다 낮은 1.4와 재해율 0.3이라는 것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평균재해율 0.9 전라북도 평균재해율 1.07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많은 요소와 활동이 있겠지만 Near Miss가 가장 인상적이다. 각 Section 별 실시하는 Near Miss는 금년 5월까지 520여건을 발굴 시정조치하였다. 그 중 16건이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한다. 즉, Near Miss를 통해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이러한 Near Miss운동은 Staff에서 관여하지 않고 Section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Staff에서 관여하여 Section가족과 감정이 어긋나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Section의 자율적인 진행으로 Near Miss운동이 전개된다고 송만수 팀장은 말한다.

21개 Section을 구성하고 있는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는 모든 안전활동을 Section단위로 전개하는데 Section별 무재해 목표관리도 그중 하나이다.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운동으로 현재 14년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는 Section이 있을 만큼 목표관리의 열기는 뜨겁다.

이 밖에도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의 실정에 맞는 11대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금년 5월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송만수 팀장의 열의를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안전인이 대우를 받는다



▲ 송만수 팀장

는 것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듯 안전관리자의 권한도 최고이다. 안전인이 의지가 있어야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인데 이러한 기업문화에는 안전을 회사 경쟁력의 첫 단계로 여기는 신군정 상무를 빼놓을 수 없다.

늘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말며, 표준작업을 준수하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신군정 상무는 매일 아침 회의 첫머리에 안전을 내놓을 만큼 진정한 안전경영인이다.

이처럼 모두가 안전인인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는 세계속에 안전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끝으로 안전이 세계 경쟁력에서 척도가 되고 있는 지금, 기업 경영에 있어 손실 방지에 안전이 우선되는 산업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예방안전에 주력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송만수 팀장은 얘기하며 인터뷰의 끝을 맺는다.

〈〈금강종합건설(선운사-홍덕간 도로건설공사)홍봉선 대리〉〉

“안전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불감증이야말로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죠.”

전북 고창에서 “선운사-홍덕간 도로건설공사(송충호 소장)”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금강종합건설의 홍봉선 대리의 말이다.

97년 「대전남부순환도로공사」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진행한 홍봉선 대리는 토목 전공자이다. 처음 안전과 토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홍봉선 대리는 안전관리자도 시공을 알아야 더욱 세밀한 안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전 시공업무를 안전에 접목시켜 전문성을 띤 토목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여름 직열하는 태양아래 토목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더더욱 열악해진다. 자연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이 홍봉선 대리의 생각이다.

이처럼 현장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홍봉선 대리의 마음은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휴게실 설치와 근로자의 피부보호를 위한 안전모, 그늘창을 비롯해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선카바를 지급한 것이 그렇다.

특히 이동식 틀비계 연결 설치시 상단 안전난간 설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가 용이하고 폭목설치가 쉬운 Y형 연결고리를 개발하여 특허까지



▲ 홍봉선 대리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끔 현장에서 불안전 행동이나 상태를 시정함에 있어서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홍봉선 대리는 현장 근로자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듣는다. 그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만큼이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 홍봉선 대리의 생각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도 소속감을 갖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지원제 등의 모든 행사에 참여시켜 한 가족으로써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홍봉선 대리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보호장구 지급에 대해 쓴소리를 한다.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시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2차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현장 출입 시 개인 보호구를 본인이 소지하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떠나는 본지 기자에게 안전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스텝(Staff)이지 책임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무재해 현장을 위해 노력할 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종합건설의 완벽한 무재해 공사현장을 다시 한번 그와 함께 다짐해본다.

재난관리시스템

전라북도는 각 기관, 단체 및 도 관련 부서별로 「2004년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실정과 소관업무에 적합한 재난예방대책에서 재난대비대책, 재난수습대책, 재난복구대책 등을 확립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예방대책에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지정관리하고, 1, 2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리체제 확립,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산업안전시스템 등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대비대책과 초등대응에서 지원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라북도의 숨은 노력을 볼 수 있다. 

〈최종덕 기자〉

